

01 교회소식

“GCNTV HINDI, 감사합니다!”

힌디어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선’ 시리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도 변함없이 상대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을 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다.

03 기획특집

내 마음의 선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해 내 마음의 선을 점검해 본다.

04 간증

기도받은 뒤~

은사 집회에서 기도받은 뒤 교통사고로 인한 목 디스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시력이 회복돼 난시 증상이 사라진 성도들의 간증.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인도 힌디어 유튜브 채널, ‘GCNTV HINDI’



인도 힌디어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환자기도를 받은 시청자들이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됐다는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 텔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는 2014년 5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 2017년 ‘GCNTV HINDI’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각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결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십계명’,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사랑장’, ‘팔복’ 등 이재록 목사의 설교 영상과 환자기도 영상을 힌디어로 더빙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툼이 있던 가정의 사랑으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고, 구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1월,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 조회 수는 176만 회, 설교

‘십계명’은 6만 2천 회, ‘십자가의 도’는 3만 7천 4백 회, ‘권능’은 2만 9천 회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라 인도 전역에 50여 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250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도 맺었다.

이 외에도 ‘GCNTV HINDI’에서는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힌디어로 동시통역함은 물론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기초로 한 신앙 상식 프로그램과 온라인 성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번역, 더빙, 자막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현지 성도들이 밤낮 없는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에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화상 채팅을 통해 김상휘 목사가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으로도 지속적인 교제와 신앙상담이 가능하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도 전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은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며 많은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김상휘 목사는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GCNTV HINDI는 힌디어권뿐 아니라 인도의 마라티어, 벵갈어 등 다른 언어로도 확대하여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

인도 ‘GCNTV HINDI’ 시청자 간증

“위계양으로 인한 온갖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비나이 나브랑 성도 (25세, 인도 찬디가르 빌라스푸르 거주)

지난 6년간 저는 위계양으로 위통은 물론 두통과 흉통, 척추 통증을 고통 속에서 아주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제 치료비를 대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저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유튜브에서 목회자들의 환자기도를 검색해 기도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환자기도를 찾던 중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발견하여 기도받게 되었지요.

바로 ‘GCNTV HINDI’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나와 있는 인도 텔리만민교회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자매님은 매우 친절한 목소리로 제가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말과 함께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사 집회가 곧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철야 기도회 링크를 보내주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저는 은사 집회 시 치료받고자 제 사진을 첨부해 환자 접수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했지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참석한 은사 집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이수진 목사님께서 접수된 환자들의 병명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는데, ‘위계양’이라고 하실 때 제 몸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의 구도와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계속해 간절히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놀랍게도 모든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은사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 주님께 단 1, 2분만이라도 통증을 멈추게 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받은 뒤 모든 통증이 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저를 치료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신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GCNTV HINDI’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윗의 선(善)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며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23)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한 것 같았지만 왕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져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이르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사울 왕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하므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언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지요.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주목하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여덟 명의 아들 중 맏째로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참으로 선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담대히 믿음으로 행함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 족속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 대치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3미터에 가까운 거인으로 놋 투구와 갑옷, 놋 단창으로 무장한 대단한 용사였지요. 이런 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큰소리를 쳐도 이스라엘은 반박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

게 되지요. 그러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사울 왕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 나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외치며 물맷돌을 던지지요. 이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해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졌고,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전반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한 것처럼,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 분연히 일어난 믿음의 행함을 ‘선’으로 여기셨습니다.

2.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도 변함없이 선대하며 그 마음에 감동을 줌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매우 기뻐해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올 때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하자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요.

사울 왕의 시기심은 악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등 날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윗을 무리한 전쟁에 내보내 죽이고자 하고 그의 집에 군사를 보내 죽이려 하지요.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지만 그는 집요하게 다윗을 찾아다니며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에게 그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삼상 24장). 다윗의 은신처인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사울 왕이 모르

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심은 다윗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곁웃자락만 가만히 뱉니다. 그리고는 이 일조차 마음에 찢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며 부하들에게도 사울 왕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또한 사울 왕과 멀리 떨어졌을 때 그에게 지극히 겸비하고 선한 말로써 자신이 결코 해칠 마음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군대를 철수해 돌아가지요. 하지만 그는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며 대대적으로 준비해 나섭니다(삼상 26장).

다윗이 있는 곳에 이른 사울 왕 일행은 길가에 진치고 사울 왕은 진 중앙에, 군대장관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탐정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다윗이 진 가운데 자는 사울 왕에게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온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찢어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말뚝이 가서 사울 왕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며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아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말하며 돌아가지요.

만약 도의상 한 번 살려 보낸 상대가 다시 악을 행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 8:30 PM |
|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 | | | |
|---|---|--|--|
| <p>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p> | <p>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p> | <p>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p> | <p>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p> |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또다시 죽일 기회가 온다면 다윗처럼 변함없이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마음 중심이 선 했기에 두 번이나 같은 기회가 와도 변함없이 상대를 선 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뤘습니다. 곧 '여호와 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만이 아니라 부하들도 그 뜻을 따르도록 했지요.

아무리 자신이 사울을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며 자기 임의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 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루시도록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중심에서 사울 왕이 잘되기를 바 라는 마음이었기에 선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 마음을 편 안하게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울 왕이 블 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슬피 울며 금식했 고, 사울을 장사지내 준 길르앗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 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우리는 악으로 나오는 상 대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 선 대했다 할지라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선대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3. 지적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연 단을 받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는 중심이었지만, 당 시는 성령시대가 아니었기에 깊은 본성 속의 악까지 버 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 평안해 졌을 때 본성 속에 있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1~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전한 선에 이르도록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즉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지요. 그런데 성경 에는 우리아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자세히 기록하 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아를 꾀계를 써서 이방인 의 손에 죽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 였느냐" 하시며 다윗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 다. 그 후 이 일로 인한 혹독한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지요.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지적받기를 즐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라 할지라도 지적을 받을 때 즉시 회 개하고 주어진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어린 소자가 지적을 한다 해도 그것 이 진리라면 중심에서 겸비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암살롬의 반역으 로 급히 왕궁을 빠져 나와 도망칠 때 시므이가 돌을 던 지며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버새가 당장 시 므이를 처치하겠다고 하자 다윗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 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 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며 이 를 만류하지요.

바로 중심이 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렬 때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선 가운데 깨닫게 되어 중심에서 감사가 나옵니다(욥 23:10).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독한 연단을 받았지 만 선으로 통과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 로서 세세토록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름다운 선을 본받기 위 해 항상 선한 것을 보고 듣기를 즐겨하며 주위에 아름다 운 선의 향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5가지 항목을 통해 점검해 보는 마음의 선

1 서운한 마음이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기도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생각 에 서운함이 틈타고 낙심합니다. 시간과 물질, 마음 다해 충성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열 매가 주어지지 않으면 낙망하는 경우도 있지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악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시 37:1) 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행한 만큼 인정과 칭찬 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 한다면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 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함도 아니요, 인정

받거나 칭찬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께서는 이처럼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로 축복하시지요. 설령 이 땅 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해 도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혹여 자신이 충성한 만큼 칭찬이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결코 서운해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무 익한 종의 마음(눅 17:10)으로 내게 사랑을 주 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 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했기에 누가 알아주 든 알아주지 않던 상관없는 것입니다.

2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마음인가?

양보는 자기에겐 돌아올 유익을 포기해 그것 을 상대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 서 상대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상대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도와주 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이 마음을 좇는다면 그 사람은 주변 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3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기 죄로 인한 애통, 영혼을 위한 애통, 하나 님 나라를 위한 애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 다. 반면에 스스로 악해서 하는 애통이 있습니 다. 곧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남과 비교해 자신 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자기 악을 발견했을 때도 좋은 부모를 만나

지 못해서, 좋은 환경 속에 자라지 못해서라며 남의 탓을 하지요. 여기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 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 다. 자기 악을 발견했다면 겸비하게 낮아져서 철저히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 는 애통을 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4 양보하는 마음인가?

내게 막대한 손해가 온다 해도 과연 양보할 마음이 있는지요?

주 안에서 각 지체된 우리가 서로 자기주장 만을 내세우고 자기만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롬 12:5).

서로를 아껴 주고 양보하는 마음이어야 하지요. 이러한 마음은 곧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마음과도 통합니다.

5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이루려면 마음 에서 시기, 질투,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헤 아리고 수군거리며 판단, 정죄하는 모습은 흔적 도 없어야 하지요.

더욱이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에도 기뻐해 줄 수 있 는 마음이 되어야 진정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트레일러에 부딪혀 몸이 튕겨나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 디스크 5, 6번이 파열돼 통증으로 늘 누워 있거나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어야 했지요. 또한 팔과 어깨의 통증으로 양치질을 몇 번씩 쉬어가며 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수술하지 않고 여러 병원에서 침 치료와 스테로이드 주사 등 다양한 주사를 맞으며 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지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 통증으로 인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흘렀고 몸은 늘 퉁퉁 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너무 심해 급기야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해야 견딜 수 있었지요. 저는 치료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아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낙심되었습니다.

결국 저를 온전히 치료해 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GCN방송을 통해 작년 11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작정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12월 10일 은사 집회 시 꼭 치료받으리라' 다짐하며 몸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성령의 감동함 속에 깨우침이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첫사랑을 잃은 것과 세상을 바라본 것



“너무나 고통스럽던 목 디스크의 통증에서 벗어났어요”

신은주 집사 (53세, 3가나안선교회)

들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였지요.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12월 10일, GCN방송을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했는데 신기하게도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는 어깨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저는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통증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온몸이 너무 뜨거워서 잠에서 깰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시원한 곳으로 가서 찬물을 마시며 어느 정도 몸을 식힌 후에야 다시 잠이 들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몇 년 만에 통증 없이 푹 잠을 자고 나니 상쾌하고 몸이 날아갈 것같이 가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기대어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와 척추 측만증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변기에 앉아 몸을 숙이는 순간 허리 쪽에서 푹푹 소리가 나더니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간증을 작성하고 누운 뒤에는 등 쪽에서 푹푹 소리가 나더니 등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어나 이리저리 움직여 보니 몸이 개운하고 시원했지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시력이 회복돼 난시 증상도 없고 또렷이 보입니다”

임혜란 권사 (55세, 3세대 15교구)

1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저는 '시력 회복을 위해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난시 증상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져 충혈되고 두통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은사 집회가 있었던 1월 21일 금요일예배 시 설교 전 방영된 만민매거진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였습니다.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 뒤 치료받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전에 난시를 치료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난시가 서서히 시작돼 임

신과 출산 후에는 자주 눈이 충혈되고 두통이 따랐지요. 그 당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서 시력 회복을 위해 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뿌리며 환자기도를 받곤 했는데, 시력이 회복돼 난시 증상이 사라지고 선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충혈되던 눈도 맑아지고 두통도 사라졌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감사를 잊고 간증으로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입니다.

만민매거진 간증에 은혜받은 저는 '오늘 꼭 치료받아 영광 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응답받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국내외에서 접수된 환자들의

병명 중 '시력 회복'을 부르며 기도해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뒤 좌우 0.6, 0.7이었던 시력이 회복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 충혈되고 두통이 따랐던 증상도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1월 둘째 주에는 코로나 3차 백신 접종 후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다니엘철야 시간에 당회장님의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받은 뒤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기운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구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의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바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1)546-1537, 010-2672-0244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민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